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

2019 — 8.22. - 9.8

2018 — 6.15 - 7.1

2016 — 6.9 - 6.19

죽고 싶지 않아

안무·연출 류장현

주최·제작 국립극단



그림.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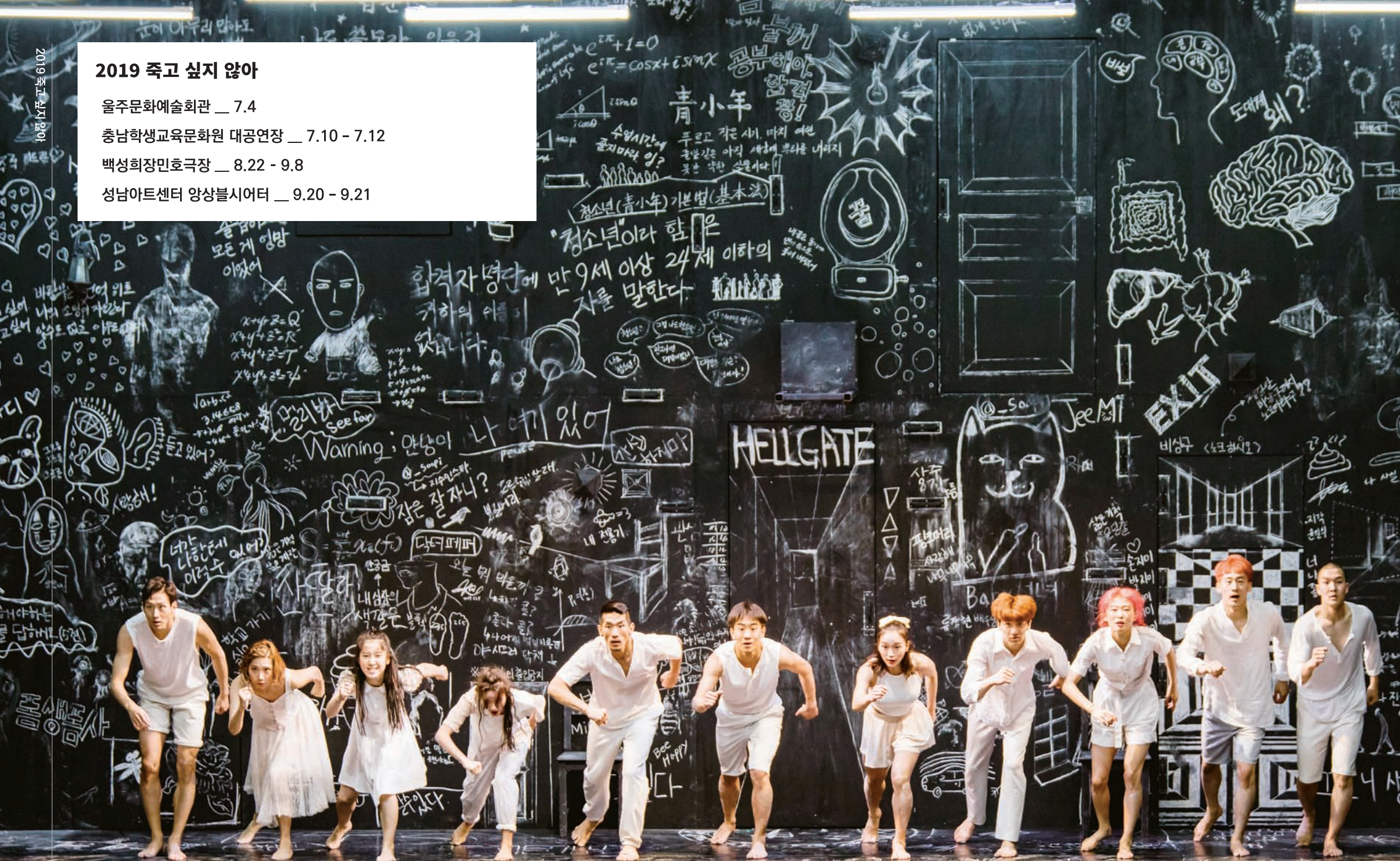
2019 죽고 싶지 않아

울주문화예술회관 _ 7.4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 _ 7.10 - 7.12

백성희장민호극장 _ 8.22 - 9.8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_ 9.20 - 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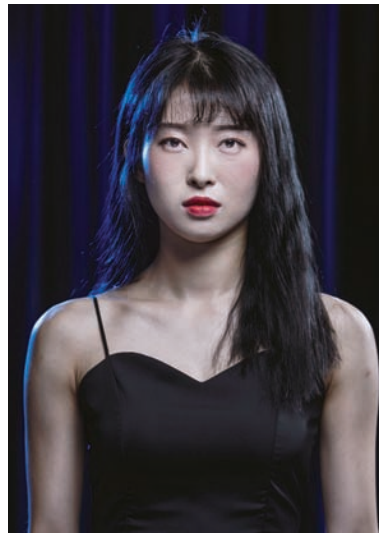


김난수 Kim Nan-soo

연극 〈까사발렌티나〉
무용 〈Mamihlapinatapai〉 〈우리는 멧돼지 사냥에 성공했다〉 〈변신〉
〈Day dream〉 〈갓 잡아 올린 춤〉 〈아드레날린 드라이브2〉 〈삼간도〉
수상 2016 제23회 선잠제향 공주 당선
2014 제2회 부천 전국국악경연대회 은상

김지수 Kim Ji-soo

연극 〈수업-비극의 코미디〉 〈니 애비의 볼레로〉 〈하녀들〉
〈변태〉 〈행오버〉 〈리비도 파우스트〉
뮤지컬 〈왕의 나라〉 〈시집가는 날〉 〈선인장 꽃피다〉
신체극 〈그런 말로〉 〈그림자사냥꾼〉
수상 2018 GDC 국제무용콩쿠르 실용무용 은상
2018 전국실용무용대회 우수상
2017 대구무용제 단체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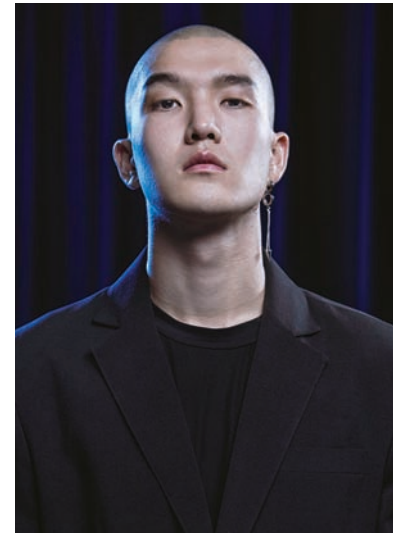
박상하 Park Sang-ha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 〈About lady white fox with nine tales〉
〈달의 아들: 피의 결혼〉 〈레이디 구미호에 관하여〉
〈이방인의 만찬〉 〈모범생들〉 〈맥베스 411〉
무용 〈Mamihlapinatapai〉 〈운〉 〈변신〉 〈갓 잡아 올린 춤〉
〈아드레날린 드라이브2〉 〈엄마의 향아리〉
수상 2019 SDP International Festival 베스트작가상
2019 PADAF 융복합공연예술축제 최우수연출상



배재완 Bae Jae-wan

데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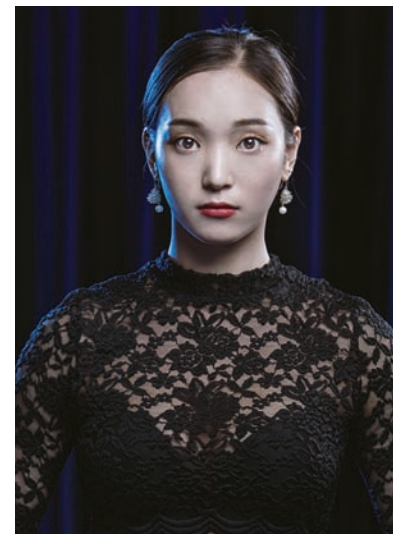
성안영 Sung An-young

무용 〈Mamihlapinatapai〉 〈변신〉
〈갓 잡아 올린 춤〉
〈아드레날린 드라이브2〉 〈warning:〉



손지미 Son Jee-mi

무용 〈Mamihlapinatapai〉 〈운〉 〈변신〉 〈다른 소리〉 〈죽고 싶지 않아〉
〈아드레날린 드라이브2〉 〈저항〉 〈농담〉 〈휴먼〉 〈춤이 말하다〉
〈흐르다〉 〈volo show〉 〈미〉 〈AR(c)T〉 〈IKP〉
수상 2019 SDP International Festival 베스트작가상
2016 Break Breath BGirl Battle 2nd prize



송재윤 Song Jae-yoon

무용 <Mamihlapinatapai> <악수> <변신>
<주름이 많은 소녀> <죽고 싶지 않아>
<아드레날린 드라이브2> <Piano> <농담>



오진민 Oh Jin-min

무용 <Mamihlapinatapai> <변신> <주름이 많은 소녀> <다른 소리>
<갓 잡아 올린 춤> <Piano> <Red Circle> <행복의 조건은 없다>
<숨 쉬고 가>

수상 2018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Hellas 1st prize for excellent



진여준 Jin Yeo-jun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 <햄릿: 여자의 아들>



윤일식 Yoon Il-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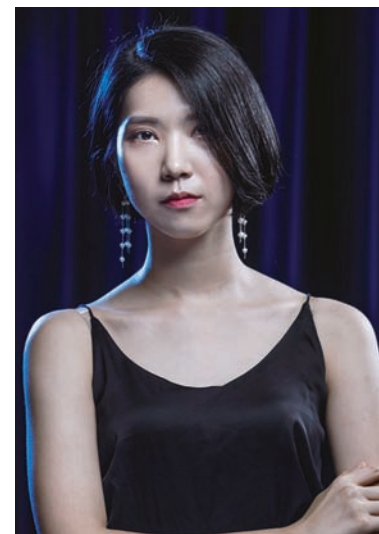
무용 <균림> <Mamihlapinatapai> <변신>
<주름이 많은 소녀> <갓 잡아 올린 춤>
<Motivation> <권태>

수상 2014 한국현대무용협회 콩쿠르 동상



최세윤 Choi Se-yoon

무용 <Mamihlapinatapai> <변신>
<갓 잡아 올린 춤>
<아드레날린 드라이브2>





2016 죽고 싶지 않아

출연진

김지원 김희정 박정휘
심재호 안승균 유영현
이동하 이은지 장라운
지석민 최지훈

공연개요

6.9 - 6.19
백성희장민호극장



2018 죽고 싶지 않아

출연진

강은나 김도현 김지원
나경호 손지미 송재운
안승균 유영현 이선애
이원준 조현도

공연개요

6.15 - 7.1
백성희장민호극장

7.12 - 7.13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대공연장

7.28
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9.7 - 9.8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나를 살게 하는 춤, 사람을 살리는 춤

글. 김준호_청소년극 작가·연구자

2015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청소년예술가탐색전〉 작업에서 류장현 안무가를 처음 만난 이후로 3년 동안, 나는 예술창작과 예술교육 양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하는 그의 흥미로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런 나에게 류장현은 사나운 맹수와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을 동시에 지닌 매우 모순적이며 그래서 더욱 흥미롭고 궁금한 사람이었다. 이 인터뷰는 이와 같은 예술가 류장현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2019년 〈죽고 싶지 않아〉에 대한 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예술가 류장현의 세계를 탐험해보자.

류장현이란 예술가에게는 ‘반복한다’, ‘멈춰있다’라는 말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2019년 〈죽고 싶지 않아〉는 이전의 공연들(2016년, 2018년)과 무엇이 다른가?

우선 제작의 측면에서 11명 중 9명의 배우가 바뀌었는데 멤버가 바뀐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번에 공연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해내야 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지와 같은 접근방식을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연출적으로 공연에 귀신의 세계가 들어왔다. 혐오와 모멸감이 최근 사회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경제적·정치적 관점과 같은 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존재인 귀신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면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존재들이니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에 대한 불평이 마치 귀여운 잘난 척처럼 들리지 않을까? ‘아,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래도 넌 이렇게 살아 있잖아!’(웃음) 또한 그렇게 된다면 기존 〈죽고 싶지 않아〉의 축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멈춰서 영원히 잠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이란 것을 자신의 생을 가장 긍정하는 형태인 춤으로 풀어낸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우리 문화에는 죽음을 축제로 즐기자는 정신이 있다. 그걸 금기시하고 엄숙해하는 건 서구에서 온 것이다. 그렇기에 귀신의 존재를 통해 죽음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축제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안무·연출-류장현 Ryu Jang-hyun

〈Mamihlapinatapai〉 〈변신〉 〈주름이 많은 소녀〉
〈다른 소리〉 〈Field Holler〉 〈아드레날린 드라이브 1,2〉 〈들리는 몸〉 〈농담〉 〈칼 위에서〉 〈나는 아프리카인이다〉 〈drUnken luCifer〉 〈PIANO〉 〈갓 잡아올린 춤〉 〈Fly〉 〈보듬어가세〉 외

〈죽고 싶지 않아〉는 공연이 될 때마다 멤버가 파격적으로 바뀌었다. 레파토리 공연의 장점은 제작과정의 안정감인데 정반대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죽고 싶지 않아〉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 주셨듯이 매 과정마다의 상당한 진통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움들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인가?

사실 나는 안정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항상 해 왔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룰과 안정감을 찾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술만은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나?’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치기 어렸을 땐 그것에 강박적인 측면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확신이 생기니 리더나 연출로서 그 확신으로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게 과정에서 서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웠다. 〈죽고 싶지 않아〉가 나의 레파토리 중에 횡수로 제일 많이 공연한 작품이 되었는데, 그렇게 갈 수 있게 한 힘은 과정의 즐거움 그리고 그 즐거움을 통해 모험을 바라게 되는 것에 있었던 것 같다. 나에게 인간은 놀기 위해 산다는, 무조건 놀고 싶어 한다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우선 일과 놀이를 합쳐서 즐겁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즐겁고 함께이면 모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되면 결국 철부지 어린아이였을 때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된다. ‘(속삭이며)야, 우리 이거 하자!’ 그때부터는 이유 같은 건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다. 인생이 모험의 연속이길 바란다. 대신 함께 즐겁게.

〈죽고 싶지 않아〉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공연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그 과정이 즐거운 모험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 〈죽고 싶지 않아〉의 특히 어떤 점들이 연출가 류장현을 그토록 매력적이고 즐거운 모험으로 이끌어주는 것일까?

무엇보다 이 작품이 청소년에서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다.〈죽고 싶지 않아〉는 2015년 ‘청소년예술가탐색전’에서 진행된 류장현 안무가와 청소년들과의 창작실험에서 출발했다.) 청소년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장 나다운 시기였다. 어느 누구에게 대입해도 그럴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과 정말 가까운 시기이고 그래서 가장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시기인 것 같다. 다음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 옆에는 죽음이 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가?’, ‘여기서 살아있다는 게 단지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별에 왔는지 궁금해 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나?’, ‘나는 나의 어

릴 적 꿈을 실현하고 있나? 아니면 그 꿈을 정치 혹은 자본의 목적에 의해 감춰왔나?’ 감춰놓고 회피한다는 건 죽음과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극 <죽고 싶지 않아>’라면 의도치 않아도 청소년기의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죽음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작품은 그렇게 나 자신과 나를 포함하는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거울을 비추는 그런 작품이다.

그렇다면 청소년극 작업이란 측면에서 <죽고 싶지 않아>를 계속 해오며 느낀 것들이 있을까?

이른테면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공연은 매 공연과정마다 청소년과의 워크숍 및 피드백 등의 예술교육 과정이 함께 진행되는데, 이 과정들이 예술가의 일반적인 작업방식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기에 그 속에서 있었던 어려움들 혹은 발견들이 궁금하다.

무엇보다 이곳은 청소년에 대해서 행동하는 곳이다. 그런 곳이 어디에 더 있을까? 그리고 그걸 아카이빙하고 계속 반추하는 그런 일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나의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예전에는 예술이면 예술,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예술과 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그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죽고 싶지 않아>를 통해 무려 4년 동안 청소년들을, 나보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경험을 통해 예술과 교육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 과정들은 나와 청소년 개개인들이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배움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한창 작품 연습을 하다가도 잊을 만하면 연구소에서 ‘연출님, 청소년 워크숍을 해주셨으면 해요.’ 제안하고, 그러면 ‘아... 지금 작품 만드는 게 급한데 워크숍을 하라고?’ 잠시 그러다가도 ‘네, 할게요.’ 한다.(웃음) 거기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하게 된다. 나를 느리게 가게 하면서 작품에 대한 다른 방식의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같다.

영동한 질문이지만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스스로 <죽고 싶지 않아>를 ‘이제는 졸업해야겠다.’ ‘이젠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들이 있었을까 궁금하다.

계속 있다.(웃음) <죽고 싶지 않아> 공연이 잡히면 ‘그땐 어떻게 만들었지?’ 하며 내 시스템을 일단 전으로 돌려야 한다. 그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면 ‘이젠 그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변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럴 땐 스스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매번 모험을 추구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스텝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걸 알아서 거르는 필터가 생겼다.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는.(웃음) 그건 나의 신선함을 위해서다. 증명은 그 다음에 오는 것 같다. 이론과 논거는 나중에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직관과 감각에 따라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들에 대한 부담감이 나로 하여금 그런 모험들을 계속 시도하게 만든다. 나는 관객들이 작품을 지루해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심지어는 관객들의 말풍선이 보이고 그 말들이 귀에 들리기까지 한다. ‘이게 뭐야? 지루하잖아!’ 그럴 때면 미칠 것만 같고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음악을 정하고 ‘이걸로 합시다.’ 이랬다가도, 갑자기 아닌 것 같아서 저녁에 바꾸고, 그 다음날 다시 빼기로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죽고 싶지 않아>는 유독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본인을 그토록 예민하게 만들면서까지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

사건이 있었다. 사실 예전에는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계몽의 의지 같은 것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식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었다. 그러던 와중에 치매에 걸린 분들이 계신 병원에 작은 투어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의 간호사 분께서 다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데다 잘 못 알아보시고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니 너무 부담 갖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때 소통의 의지가 발동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들으셨을 민중가요 리스트를 뽑아서 수백 곡을 들으면서 음악 목록을 만든 다음 형광색 옷에 반짝이는 물안경을 쓰고 모히칸 머리를 하고 한삼을 형광색으로 칠해 도깨비처럼 꾸민 후에 미친 듯이 즉흥 춤을 쳤다. 근데 그때 한 할머니가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신 거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었다. 나는 계몽을 하려고 했었는데, 몸의 감각이라는 것은 ‘너 이거 알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구나, 춤은 사람을 살리는 예술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이 2019년 <죽고 싶지 않아>를 어떻게 즐기고 경험했으면 하나?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느꼈으면 좋겠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슬프면 슬퍼지는 대로. 그렇게 나 자신을 그냥 버렸으면, 내던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굳이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행위 안에서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감각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관객 분들이 그렇게까지 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서로 깨끗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위로하는 최선 혹은 최소의 방법에 관하여

글. 염혜원.

2016년 <죽고 싶지 않아>의 첫 공연을 마치고 나서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청소년이 삶의 충만함을 만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작품의 연원과 함께 2018년 공연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관객이 알아채기를 바라는 의도가 덧붙여졌다.

깊은 주름이 없는 청소년의 몸과 감각을 의식하면서도 그들의 몸이 상처받기 쉬우며, 조만간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간의 제작 과정을 통해 새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세상의 감각과 명령에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감정에 충실하기에 고통을 받는 이 서정적 나이를 소위 어른들은 잊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 시기와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전혀 다른 몸을 지녔다고 여기며 아픔에 둔감해진 성인의 몸에 정작 상처는 더 많지만 깊은 주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생의 본능을 향한 움직임에 감응하는 것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청소년이 알아챘으면 했다. 마찬가지로 이를 어른도 인식하기를 바랐다.

해서 청소년이 갑자기 어떤 큰 변화나 단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이 이어졌기에, 모든 세대가 피할 수 없는 상처를 기억하고 느끼면서 자신의 몸을 알아보고 긍정하자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길 바랐다. 나아가 상대의 몸을 알아봐 줄 지기(知己)의 위치에서 서로의 몸에 관심을 두기를 원했다.

물론 자신을 위로하는 최선 혹은 최소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상실감을 견디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일 터. 하지만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을 다 같이 견디는 중이라는 것을 안다면 서로에게 너그러워지고 기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생의 한가운대를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던 몸과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대면하게 하는 경험은 특별하며, 이것이 예술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번 공연에서는 ‘생의 본능’을 표현하는 몸 자체에 집중하고자 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몸으로 숨 쉬며, 느끼며, 움직이는 것에 의지하고자 했다. 오늘날의 도시가 매끈할수록, 삶이 가장 매체의 겹으로 두껍게 덮여 있을수록 사람들은 실재하는 몸과 자연을 그리워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그 반대쪽에는 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생을 향한 몸부림이 커질수록 가까워지는 죽음에 관한 해독이 절실해진다.

따라서 몸에 집중하는 것은 전체 삶을 관통하는 살아있음과 죽음을 동시에 느낀다는 의미다. 살아있음과 이어진 죽음, 죽음과 이어진 살아있음은 생명의 순환 궤도와 일치한다. 즉, 죽음과 재생이라는 자연의 이치 속에 사람 역시 자연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해서 궁극적으로 생의 본능을 알아챌다는 것은 몸의 감각을 일깨우고 그것에 자신을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풀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염혜원

구성 협력·드라마투르기

<죽고 싶지 않아> <변신> <주름이 많은 소녀> <칼 위에서> <조반니> 외



하지만 대다수 현대인에게 죽음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이며, 죽음과 연관된 사물이 나 장소는 기피 대상이나 혐오 시설로 치부한다. 또한, 뉴스로 솔하게 접하게 되는 어떤 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다가 뜻 모를 세상의 악의와 접할 때, 삶 자체가 지독한 난제로 다가온다. 물론 인생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는 웃음과 행복만 겪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음)’을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생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셈이다. 급기야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아프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몸의 분열이 일어나고 만다. 차라리 몸이 미쳐지면 낫겠지만, 몸의 감각이 마비되면서 고통조차 둔감해지는데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삶 전체를 지배하는 치명적인 무기력에 빠져든다. 이는 우리 몸이 오랫동안 이 사회에 길들고 교육된 방식 탓이 크다.

그렇게 죽음을 외면하는 도시 문화와 환경, 몸을 경시하는 시대의 관습 때문에 몸으로 세상을 경험할 때 느끼는 긴장감이나 생의 감각은 갈수록 접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어쩌면 몸의 부재로 인하여 지금 시대의 삶은 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지도 모른다. 마비되었거나 둔감한 몸으로는 친구도 세계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의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원하는 그 무엇을 알아채야 한다. 그래야만 몸의 상처를 알고 제때 치료할 줄 알게 된다. 불온한 시대에 건강한 몸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죽고 싶지 않다면 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어쩌면 2019년 <죽고 싶지 않아>에서 디오니소스의 그림자를 찾고자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위한 광란의 축제가 고대 그리스 연극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강력한 신의 매력은 그가 해마다 죽고 부활한 데 있다. 그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무수한 생명을 싹틔우는 풍요의 신이기도 하다. 그의 또 다른 이름 바쿠스는 포도나무의 싹을 의미하는 바코스(Bakchos)로, 디오니소스가 선사하는 술은 창조적 영감이나 쾌락만이 아니라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빚어내는 생명의 정수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다시 깨어나는 생을 거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처럼, 2019년 <죽고 싶지 않아>는 삶의 수수께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죽음의 부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름이 새겨진 몸의 언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삶 전체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몸을 매개하여 표현하는 예술 선상에서 연극과 춤의 경계를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본다. 개인적으로 <죽고 싶지 않아>는 춤이 이어져 연극이 되고, 연극이 이어져 춤이 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몸이 움직여서 전달하는 언어에 관하여 민감해질수록 자신의 몸과 상대의 몸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본다.

몸으로 숨 쉬고, 느끼며, 움직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긍정하려고 노력해온 퍼포머와 함께 2019년 <죽고 싶지 않아> 프로덕션은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디오니소스처럼 이들은 솔하게 죽었다가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했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움직이는 몸을 통해 세상을 느끼는 긴장된 한순간을 경험하려고 노력했다. 생을 위한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



131명의 청소년 관객과의 대화

2019.07.11. 목

충남학생교육문화원

금산여고

천안여고

천안쌍용고

천안업성고

천안월봉고

천안청수고

#막춤

#인어공주 실사판

#낙서 #여러분의 이름

#리액션 #눈물

#11 #131

#천안 #금산 #서울

김미정. 교육감독_이하 '김미정' 류장현. 안무·연출_이하 '류장현'

김미정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죽고 싶지 않아>의 류장현 안무·연출가와 열한 분의 배우, 그리고 131명의 청소년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출가께서 2016년도부터 공연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감회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류장현

2016년에 청소년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많은 공연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따라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이 공연은 제 청소년기, 그리고 현재 서른일곱 살인 제가 그때 느꼈던 청소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와 관객들을 만나고 리서치를 하면서 모아진 결과물들이 오늘의 공연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꿈꾸자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세계관을 갖고 몸으로, 춤으로 만들었던 공연입니다. 잘 보셨나요?

김미정

2016년부터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청소년과의 만남이 계속 있었습니다. 공연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청소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저희 공연에 함께하는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보러 온 금산여고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죠? 두 번째로 만난 공연을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관객

저희가 작년에도 봤었고 이번에도 봤었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봐서 그런지 저번보다 이해하기 쉬웠고 다시 보니까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관객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본 건데요. 그때 느꼈던 거랑 지금 느꼈던 거랑 똑같은 생각은 막춤이 강렬하다는 거. 막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김미정

관객여러분이 두 번이나 공연을 본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우로 참여해주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송재운, 손지미 배우입니다. 작년이랑 올해 공연하시면서 느끼신 바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손지미
배우

일단 두 번씩이나 공연을 봐주신 관객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까 금산여고 친구가 얘기해준 것처럼 달라진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캐치해줄 정도로 빠져서 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춤, 혼신을 다해서 춤을 춘 것이 인상 깊었다는 말 자체가 무용수로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진심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매우 부듯하게 생각합니다.

관객

이 공연을 보면 대화적인 요소가 없는데 몸으로만 표현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배우님이 그로테스크한 장면에서 관절마다 느끼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멋있었어요.

김지수
배우

저는 물론이고 배우분들 모두 움직이면서 힘들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찾아가면서 행복했어요. 제가 하는 말들과 몸짓들이 당신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관객

혹시 그 빨간 머리 여자분(김지수 배우)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데 혹시 인어공주 실사판이세요? 이걸 그냥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고.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저도 공연을 두 번째 봤거든요. 첫 번째 공연을 봤을 때는 죽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발악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출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가 확실히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때리고 안다가 때리고 웃고 울고 춤으로 다 표현한 거잖아요. 저 몸짓하나하나가 잘 전달되었고 무릎잡고 공공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몸짓이 너무 신비하다는 걸 느꼈어요.

관객

저는 오늘 공연을 처음 보는데 솔직히 이해가 하나도 안 갔거든요. 제일 궁금했던 게 왜 제목이 <죽고 싶지 않아>인지 궁금했어요.

류장현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꼭 이해가 되어야 좋아하진 않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은 제가 보는 학생들이 되게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정해진 복장, 공간, 밥, 스케줄, 대학, 대출 등등이 모든 게 공장에 찍어내는 부품들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를 싫어하고 튕겨나가는 게 당연한데 그 튕겨져 나간 사람에게 낙인을 찍거나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을 직접 겪었고 지금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죽고 싶지 않아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사람 없어? 나 이런 사연이 있는데'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관객

저는 공연을 보면서 무대 장치가 인상적이었는데 무대를 좁게 쓰면서도 그 안에 학생들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도 배우님



들이 움직임이 엉키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연출님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류장현

처음에는 계산하고 설계도를 구현하는 방법을 쓰다가 지금은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것을 즉각적으로 시도하고 계속 변화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에게는 힘들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들이 언제든 수용될 수 있고, 내가 한 행동이 틀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변화를 잘 수용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관객

벽에 보면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썼고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연서, 전지우의 공연감상기

정연서
금산여고

‘죽고 싶지 않아’ 라는 연극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작년 2018년 7월 11일 이었다.

이번 연도에는 학교 동아리에서 보러갔었다. 포스터와 티켓을 받고 처음에 든 생각은 “정말 기대된다.” 이 한마디였다. 제목에서부터 심오한 분위기가 들어 무척 기대가 되었던 작품이다. 공연 당일 공연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무대 위에 설치된 세트가 눈을 끌었다. 공연이 시작되고 나의 눈과 귀는 공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 중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감동’이었다. 공연을 보다 보면 배우들의 현란한 춤과 웅장한 음향으로 분위기를 압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춤을 마친 배우들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곡소리를 내며 마치 춤을 열심히 추었기에 힘들다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음향이 커지면서 배우들의 곡소리도 커지고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었다. 이 장면에서 나는 짙은 감동을 받았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공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탄스러운 일이지만 배우들의 열연과 동시에 무대 뒤에서 함께 열연하고 있는 스태프의 모습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완성된 것 같아 감동을 받았다.

또한 공연 중간중간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연을 이어 나가는 게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합의 장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전체적인 공연을 봤을 때에도 마치 어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려낸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쉽게 공연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 또한 청소년으로써 모든 극을 이해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하지만 ‘죽고 싶지 않아’라는 연극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었고, 여러 기술들이 들어가 장면을 고급스럽게 연출하면서 청소년들이 신나는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 것 같아 너무나 즐거웠다. 관객석의 앞쪽, 뒤쪽, 양 사이드 어디 하나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없이 어떤 자리에서든 공연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연극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연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죽고 싶지 않아’ 연극이 정말 딱이다. 공

류장현

낙서들은 무의식의 표출 같거든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 이런 게 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서를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꼬적거리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화장실이나 벽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써놔는데 그것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써놓은 것 같아요. 무의식, 숨겨냈던 소망들처럼요. 그런 것을 생각하다보니 무대가 검은 벽이고 자연스럽게 학교의 칠판이 떠올랐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칠판에 분필로 썼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매번 지워져서 배우들이 낙서를 하는데 서울 공연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겠습니다.

김미정

실제 창작 과정 중 만났던 청소년 친구들의 낙서가 지금 무대에 적혀있기도 합니다. <죽고 싶지 않아> 공연은 내일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얼마 후 서울에서도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연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못 친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정말 나에게는 좋은 공연이었다. 공연의 처음과 중간과 끝 중에서 난 마지막 부분에서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가장 신나고 경쾌했다. 이미 몇 차례 나왔던 장면일지라도 나의 눈과 귀는 즐기고 있었고, 나의 손은 신나게 박수를 쳤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객이 즐기고 있었다. 이게 ‘죽고 싶지 않아’의 매력인 것 같다. 나를 포함한 관객들이 연극을 즐기고, 감동을 얻고, 메시지를 읽고, 찬사를 보내고, 음악을 즐기고, 함께 춤추고, 박수를 치고 이 모든 게 ‘죽고 싶지 않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와 동시에 내가 9월에 다시 한 번 ‘죽고 싶지 않아’ 연극을 보러가는 이유이다.

전지우
천안청수고

자유분방하고 충동적인 청소년을 춤으로 표현해낸 <죽고 싶지 않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대부분 몸으로 표현했다. 댄스 시어터라는 다소 낯선 장르지만 배우들이 무슨 감정일지 생각하면서 이입하고 보니 진짜 청소년을 표현한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중간에 관객들과 소통을 해서 공연을 본다는 느낌보단 같이 공연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칠판에 쓰여 있는 낙서를 관객과 읽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도 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아마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 하면 관객들과 소통한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공연을 보고 나서 ‘죽고 싶지 않아’라는 제목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풍부한 감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진로와 친구, 성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한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은, 살고 싶지 않지만 죽고 싶지 않은 청소년의 마음과 생각을 제목을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은 사실 살고 싶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살고 싶어 하고 자유롭게 싶어 한다. 작품 끝 무렵에 모두가 떠난 뒤에 ‘I Will Survive’란 노래에 맞춰 독무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나중에 친구 하나가 앉아서 박수를 쳐주는 장면이 아름답다. 눈물이 날 듯 감동적인, 이 작품의 주제가 담긴 듯한 장면이다. 이 공연을 보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힘차게 끌어안고 앞으로 더 나아가길 바란다. **자유롭게, 뜨겁게 살아남을 것이다.**

2019 〈죽고 싶지 않아〉 예술교육 활동의 여정

청소년과 몸으로 만나기

김미정 교육감독
이대호 움직임 협력
서현제 사진 및 영상
이향은 과정기록
최은정 기획

예술교육파트에서는 지방과 서울 공연에 앞서,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청소년들과 움직임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역 청소년들과 공연팀(배우들)이 영상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청소년과 배우들이 직접 몸으로 만나는 움직임 워크숍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방 공연에서는 공연 관람 후, 청소년들과 소그룹 만남을 갖기도 하고 ‘관객과의 대화’, 그리고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청소년과 공연팀이 다각도로 교류하고 소통을 이어나갔다. 청소년들과 함께 몸의 언어를 발견하고 탐색해 나간 과정을 담아보았다.

예술교육 활동의 여정

배우 워크숍	5월 27일/31일	청소년극 탐색하기 / 내 안의 청소년과 마주하기
청소년 예술교육 활동		
경기도 남양주	6월 10일	오리엔테이션 및 영상 인터뷰
	6월 15일	배우+청소년 만남
충청도 천안	7월 11일	청소년 관객과의 대화 / 영상 인터뷰
경상도 울주	6월 22일	움직임 워크숍
	7월 4일	공연 관람 및 배우들과의 만남
그리고 서울	8월 6일~17일	움직임 워크숍_4회
	8월 24일	공연관람 및 피드백
	8월 31일	댄스판 참여

청소년 참여자

남양주 뮤지컬 클러스터 동아리 고가는 김동현 김윤서 김정은 김지영 박경남 박아영 염승민 윤은서 이시은 이희범 장영수 홍성민 홍주표 울주 서부 청소년수련관 — 방과후 아카데미 강지훈 김경택 김나경 김남용 김유진 민동일 박준희 방현빈 방해경 백규원 성신혜 손민석 송민규 신성훈 엄희준 이다빈 이민석 이혜성 장현수 정세희 하시는 국립극단 청소년 17인 강명진 나연서 박세은 박정환 서정빈 석지민 양혜원 유한서 육선민 윤재희 이보매 전예린 주찬하 최선호 최지원 천안 관객과의 대화 참여 학교 금산여고 천안 쌍용고 천안 업성고 천안여고 천안 월봉고 천안 청우고

협력 교사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이인호 울주 서부 청소년수련관 김도희 김찬희 임소영 남양주 청하고 황윤경

움직임 워크숍

남양주
청소년과의
만남

영상을 매개로 배우와 청소년 접속,
그리고 몸으로 만나다.

배우-청소년, 영상을 매개로 첫 소통

: 영상을 통해 질문 주고받기



배우-청소년, 몸으로 만나기

: 몸으로 인사하기, 한계를 넘어서기



공연팀의 장면 시연 후
청소년들의 한마디

- 진로를 바꿀까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로 미쳤다. 너무 황홀한!
- 보다가 중간에 눈물이 나올 거 같았다. 뭔지는 잘 모르겠다. 울컥하는 기분.
- 같이 따라 추고 싶었고, 살아있는 걸 보는 느낌, “살아있다”가 느껴졌다.
- 일기를 쓰고 싶었다!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이니까 기록해야 한다.
- ‘이게 진짜 예술이다’ 라는 느낌! 틀이라는 게 없다는 것,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해내는!
- 11마리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것 같았다.

공연팀의 장면 시연

: 오프닝 장면 시연과 피드백 나누기



배우 워크숍

공연팀의 배우들과 함께 청소년극이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자신 안의 청소년과 만나며, 그 시기를 들여다보기

청소년극이란? — 배우들 스스로 질문 가져보기



누구나 살면서 청소년 시기를 겪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청소년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극이지 않을까?

청소년이 나와야만 청소년 연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시기를 어떻게 겪었고, 그런
우리가 지금의 청소년과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 청소년의 삶, 청소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느끼는 감성, 문제의식

청소년기에 대한 탐색 —자신 안의 청소년 마주하기

청소년기를 탐색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각자 평소에 같이 지낸 시간 외에 말로써
전달되지 않는, 감정으로써 상대방을
알아가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점도 알
수 있었다.

‘황홀하다’라는 단어가 맞는 거 같다.
모두한테 비슷한 감정을 앞으로 하면서
느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들도 ‘그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써내렸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

— 워크숍 중 배우들의 이야기

움직임 워크숍

울주
청소년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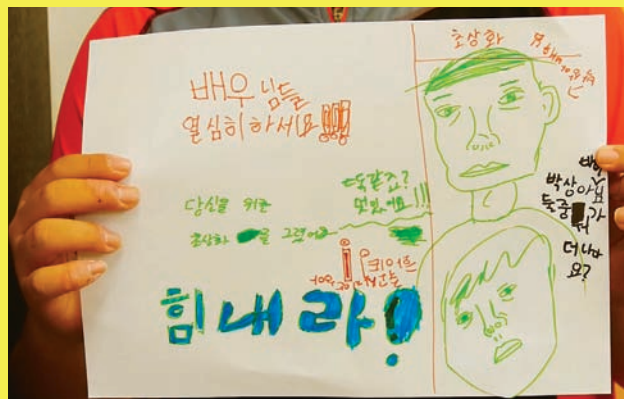
예술교육팀이 울주로 내려가 중학생 친구들과
움직임 워크숍을 한 후,
영상을 통해 ‘배우-청소년’ 접속하기



To. 공연팀

: 영상을 통해 공연전에 소통하기

- 김지수 배우님의 ‘잠은 잘 자니?’라는 질문이 인상적인데요, 잠은 잘 잔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공연 잘 하세요!
- 제일 기억에 잘 남았어요. 다섯 글자 “너 지금 뭐해?” 김난수 배우님
- 최세윤 배우님, 공연 파이팅하시고 만약에 고민 있으면 펼쳐버리시고 힘내세요. 파이팅!
- 윤일식 배우님, 제가 배우님을 그려봤어요. 파이팅!



관객과의 대화

천안
청소년과의
만남

천안에서의 공연 둘째 날, 131명의 청소년들과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고, 바로 이어
청소년들과의 개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줄을 서며 인터뷰를 자청하기도 했다.

공연 관람 후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중

“제가 알던 춤들이랑 달라서 기억에 남아요.”



“살아가면서 점점 내 소신을 잃어가는 순간이 오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스스로 돌아보며 많은 위로가 됐어요.”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

“저도 배우로서 같이 공연을 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는데

제 모든 생각, 어머니 생각, 친구 생각,

힘든 일이 떠올랐어요.

공연을 통해서 풀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힘들었지만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움직임 워크숍

서울

국립극단 청소년 17인과
남양주 청소년참가단이 함께!

서울 공연을 앞두고, 상반기 각기 다른 활동을 해온 국립극단 청소년 17인과 남양주 청소년그룹이 함께 예술교육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그간의 활동과정을 서로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곧바로 움직임 워크숍을 이어갔다.

몸의 언어로 소통하며 생을 위한 축제를 벌일 스물다섯 명의 청소년들! 4번의 만남 후에 국립극단 야외마당에서 펼쳐질 댄스판에 참여한다.

첫 번째 움직임 워크숍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쓴 ‘낙서’ 중에서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애써 따라잡으려고 눈물을 흘렸고
나 자신을 깎아 내렸을까. 춤추고 있는 어느 순간,
내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느꼈다.

오늘 낮 기온은 36도.

그래도 소극장 판 안의 공기보다 훨씬 시원한 것 같다.

4번이라는 짧은 만남이지만,

4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8월 31일,

국립극단 야외마당에서 펼쳐질 댄스판!

그 ‘생을 위한 축제’의 자리에서 그들의 몸짓을 만난다.



호우! 오! 예!! 우오예!!

손 땀 축축 끈적

둥글게 둥글게

나에게 이런 끼가?

스트레스 날아감

양말 땀구들 아이고

I can fly!

가로등에 날파리들



안무·연출 — 류장현 Ryu Jang-hyun

프로필_11페이지

구성 협력·드라마투르기 — 엄혜원 Yum Hae-won

프로필_14페이지

무대 — 박상봉 Park Sang-bong

연극

〈사막속의 흰개미〉 〈녹천에는 동이 많다〉 〈페스트〉 〈나는 살인자입니다〉 〈가모메〉 〈남산에서 길을 잃다〉 〈공포〉 〈맨 끝줄 소년〉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환도열차〉 〈햇빛샤워〉 〈죽고 싶지 않아〉 〈곰의 아내〉 〈썬사인의 전사들〉 〈불역패재〉 〈1945〉 〈옥상밭 고 추는 왜〉 외

수상

2018 제 39회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2018 제 3회 한국문화공간상 무대디자인 부문 수상
2016 제 53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2016 한국 국제2인극페스티벌 무대미술상
2013 제 50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조명 — 최보윤 Choi Bo-yun

연극

〈Consent 동의〉 〈나는 살인자입니다.〉 〈룩애틀〉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연극R&J〉 〈죽고 싶지 않아〉 〈피와 씨앗〉 〈꾼빠이 이상〉 〈목란언니〉 〈나무 위의 군대〉 〈나는 나의 아내다〉 〈히스토리 보이즈〉 외

음악

바리 〈abandoned〉 〈혁오 콘서트-23〉 〈김광민 콘서트〉 〈최백호 40주년 기념 콘서트〉 〈유기구라모토 콘서트〉 〈이적 소극장 콘서트-무대〉 외

수상

2017 제 54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2016 제 3회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 조명
2013 제 34회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조명

의상 — 배경술 Bae Kyong-sool

무용

〈달하〉 〈넥스트 스텝〉 〈칼 위에서〉 〈무가〉 〈마리아 콤플렉스〉 〈최수진: The Secret〉 〈빨간나무〉 〈Alone〉 〈drUnken luCifer〉 〈춤,신 프로젝트(춤의 精神)〉 외

무용극

〈클럽 살로메〉

방송

〈댄싱9 시즌3〉 〈댄싱9 시즌2〉

소품 — 권민희 Kwon Min-hee

연극·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헬렌 그리고 나〉 〈앤ANNE〉 〈내가 기다린 여자〉 〈좀비가 된 사람들〉 〈우주소리〉 〈시〉 〈홀연했던 사나이〉 〈비행소년 KW4839〉 〈에덴미용실〉 〈소거〉 〈적벽가 1950〉 〈Drops〉 외

음원제작 — 임서진 Lim Seo-jin

연극

〈그 개〉 〈마른 대지〉 〈녹색광선〉 〈2센치 낮은 계단〉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로풍찬 유랑극장〉 〈말들의 집〉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썬사인의 전사들〉 〈오렌지 북극곰〉 〈죽고 싶지 않아〉 〈베서니, 집〉 〈비행소년 KW4839〉 〈나는 나의 아내다〉 〈목란 언니〉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외

음악·음향디자인 — 김형민 Kim Hyeong-min

〈소녀〉 〈Home:홈〉 〈No Film〉 〈농담〉 〈Metropoils〉 〈소무〉 〈Look Look〉 〈인공낙원〉 〈Hello〉 〈Own MHz〉 〈MAUM〉 〈Unstable Axis〉 〈12MHz〉 외

교육감독 — 김미정 Kim Mi-jeong

청소년극 예술교육

〈오렌지 북극곰〉 〈사물함〉 〈비행소년 KW4839〉 〈타조소년들〉 〈룩산느를 위한 발라드〉 〈노란달〉 외

어린이극 대본·연출

〈씩둑 오리고 바짝 조이고〉 〈톡톡 쓱 이야기비단길〉 〈얼었다, 꿈? 풀려라, 호!〉 〈하얀 눈썹 호랑이〉 외

조안무·예술교육협력 — 이대호 Lee Dae-ho

안무

〈ENTRANCE〉

출연

〈isson〉 〈tempus fugit〉 〈We are made〉 〈나는 아프리카인이 다〉

수상

2013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Hellas 1st prize
2014 제11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nd prize

조연출 — 문현지 Moon Hyun-Ji

무대감독 — 문원섭 Moon Once-up

〈말들의 집〉 〈룩산느를 위한 발라드〉 〈타조 소년들〉 〈죽고 싶지 않아〉 〈고등어〉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노란 달 YELLOW MOON〉 〈아폴로 프로젝트〉 〈국물 있습니다〉 〈비행소년 KW4839〉 외

131명 관객+11명의 배우와 함께
2019.7.11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출연

김난수 김지수 박상하 배재완 성안영
손지미 송재윤 오진민 윤일식 진여준 최세윤

스태프

안무·연출 류장현

구성 협력·드라마투르기 엄혜원
무대디자인 박상봉
조명디자인 최보윤
의상디자인 배경술
소품디자인 권민희
음원제작 임서진
음악·음향디자인 김형민
교육감독 김미정
예술교육 서현제 이항은 최은정
조안무·예술교육협력 이대호
조연출 문현지
무대감독 문원섭

'TV'장면 영상디자인 조성정

'보'장면 컨셉 안승균(2016년, 2018년 출연배우)

기술감독 김무석
제작감독 김혜란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 음창인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어시스턴트 유보민
음향오퍼 김형민
조명오퍼 손민영
의상진행 김민주
무대팀 이지은 오찬혁
조명팀 정하영 임학균 서승희 유승열

무대제작 art bin_대표 박수빈
의상제작 댄스 앤 드림_대표 배경술
소품제작 두산 인테리어_대표 권태성

그래픽 디자인 워크룸
응용 디자인 WT
공연·프로필 사진 장성웅 정원균
홍보·기록영상 오슬로 프로젝트
홍보를 인쇄 인타임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정원 최윤영 이승이 김을

마케팅 이정민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김효진 조영채
대학생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윤

임소영 정기웅 황지연

티켓 김보연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매표 안내원 고은지 김다애 김인혜 김현진 박민주

하우스 매니저 김수현 김나래

하우스 안내원 권요정 전준형 김성주 박만수 이지는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박채현 정미현 김희지 정주호 지윤아

청소년 참여자

남양주 뮤지컬 클러스터 동아리

고가는 김동현 김윤서 김정은 김지영 박경남 박아영 염승민
윤은서 이시은 이희범 장영수 홍성민 홍주표

_협력교사 청학교 황윤경

울주 서부 청소년수련관

강지훈 김경택 김나경 김남용 김유진 민동일 박준희 방현빈
방혜경 백규원 성신혜 손민석 송민규 신성훈 엄희준 이다빈
이민석 이해성 장현수 정세희 하시는

_협력교사 김도희 김찬희 임소영

국립극단 '청소년 17인'

강명진 나연서 박세은 박정환 서정빈 석지민 양혜원 유한서
육선민 윤재희 이보배 전예린 주찬하 최선호 최지원

프로그램북 제작

기획·편집 김미선, 박서영

디자인 허미경

사진 장성웅 정원균

인쇄 미림아트

제작총괄 김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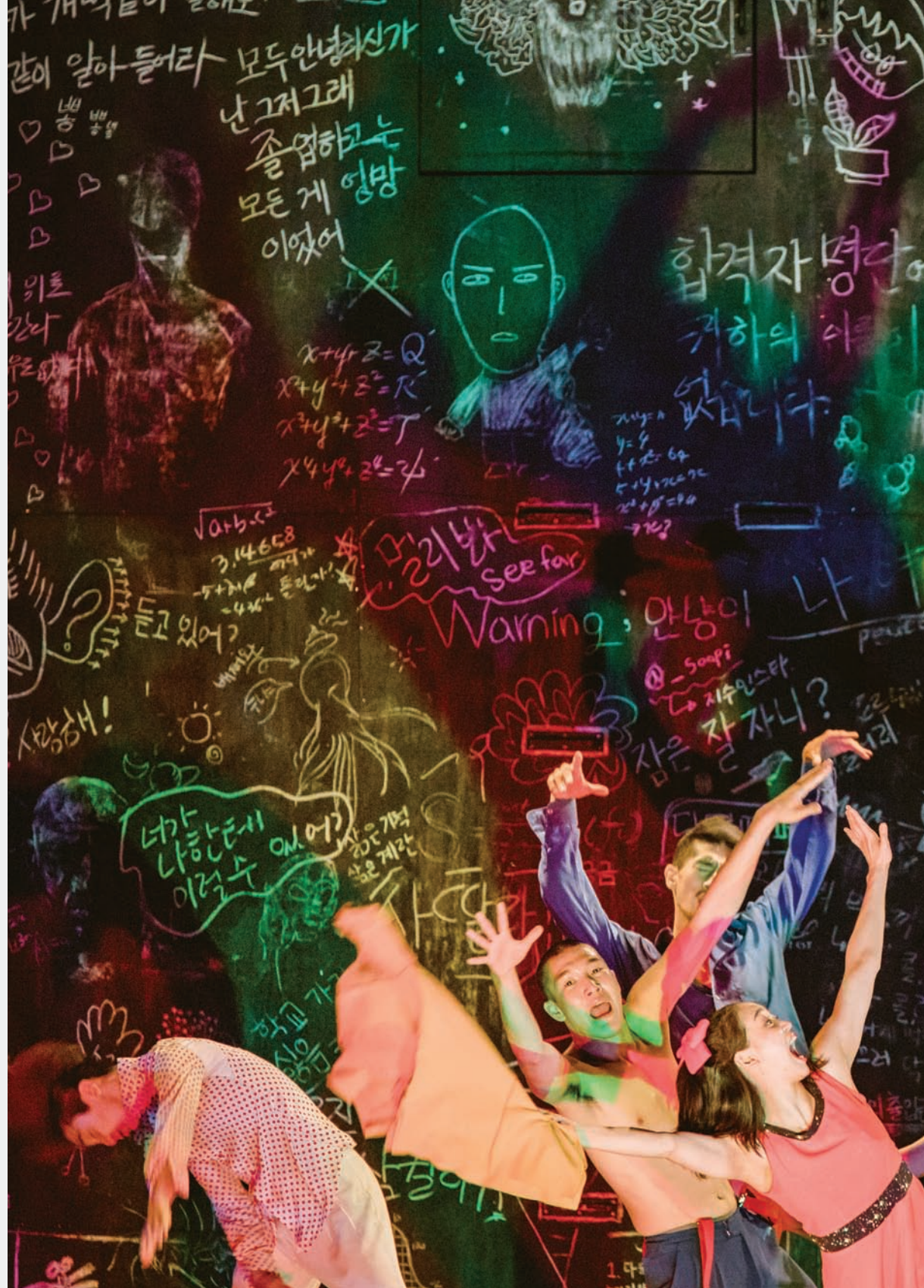
프로듀서 김미선

제작진행 박서영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조현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안병균 공연자료 관리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송이 변정원 김을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 매니저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김무석 기술감독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인사·복무·복리후생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김연지 배규림 작은극장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종무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새별 조남웅 주인영
 홍아론

2019. 11. 21.-12. 15.

연출: 윤한슬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원작소설. 자전거도둑(박완서 작), 각색. 김연주

자전거도둑헬멧을 쓴 소년:

소극장판

출연:

김용희, 김청순,

이세준, 이주형,

이지원, 박은경

국립극단
공연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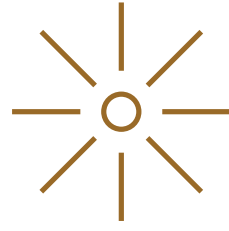
국립극단 1644-2003 | 인터넷 1544-1555

국립극단
청소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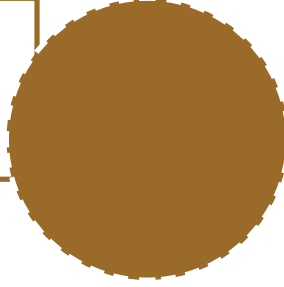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문을 열었다.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극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청소년극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예술가탐색전', '청소년극 창작벨트', '한여름밤의 작은극장' 등이 있으며, 주요 청소년극

레퍼토리로 는 <소년이그랬다>,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비행소년 KW4839>, <록산스를 위한 발라드>, <타조 소년들>, <죽고 싶지 않아> 등이 있다.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